인도네시아 선교서신 (2022년 1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롬 1:16)

■인사말: 주안에서 문안 드립니다. 2022년 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월 5일에 새로운 거처로 이사를 하느라 새해 인사를 일찍 못드려 죄송합니다. 이사 준비로 인하여 지난 12월 중순부터 3주동안 분주했는데 이번 이사가 선교지에서 저희의 마지막 이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이지만 지난 2년 동안이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었기에 정서적으로 새해에 대한 희망보다도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작년에 후반기에 저희 신학교 학생과 직원 6명,그 외에 함께 동역하는 현재 인도네시아 몇몇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코로나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미국등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이 인도네시아에도 또 다른 긴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복음의 생명력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사역의 재정비

오미크론 여파가 현재 인도네시아에도 미치고 있지만, 저희 신학교는 금년부터 대면강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주변 도시에 사는 신학생들은 학교 기숙사로 들어와 학교생활을 하며, 다른 섬에 있는 학생들은 당분간 본인들의 거처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주일에는 20-30%의 성도들이 모인상태에서 주일 말씀을 전했으나 학교 대면 강의는 2년만에 복귀되는 것이라 학생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마음에 무척 설레입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도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현지 신학생들과 성도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어려운 기간에도 변함없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기도와 후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면서

2022년 한해에 무슨 일을 맞이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혼란한 정치와 분쟁과 전쟁의 소식이 들릴 것이며 그리고 선교현장에서 복음과 선교에 도전하는 많은 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 외에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바울이 고백한 같은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한해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코로나 기간에도 담대하게 사역을 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2022년 2월부터 시작하는 신학교 대면 수업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는 학생들과 직원들이 없도록.
-신학생들이 주의 군사로 잘 양육되어 이들을 통해 복음 듣고 주께 돌아오는 자가 날마다 많아지도록 .
-매일 드리는 가정 제단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아가며 이루어가도록.



+현지 동역자 교회에서 2022년 새해 성찬식 인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김철용,이강인 선교사 드림 2022년 1월 18일.